

■ 全國圖書館大會 基調演說

# 圖書館 行政改善을 위한 政策資料의 發展的 展開

——行政改革委員會 調查報告書를 中心으로——

尹 泳 大  
카톨릭醫大司書課長

今年들어 우리 全圖書館인들이 상당한 關心을 갖고 期待하였던 行政改革委員會의 “圖書館 行政改善을 위한 調查報告書”가 지난 5월에 發表되었고 各 日刊新聞들이 다투어 報導한바 있으며 圖協月報 第20卷6號에 그 全文이 掲載되어 모두 보셨을것이고 各自가 評價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는 1963年 圖書館法이 制定 公布된 以來 처음으로 國家에서 圖書館發展에 關心을 돌려 주었다는 事實만 하여도 우리 圖書館人들은 크게 흥분할 만큼 希望에 차 있었으나 發表된 結果를 보고나서 失望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國家가 圖書館開發에 關心을 갖기 始作하였다는데 意義가 있으며 이를 始發點으로 우리 圖書館人들 自身들이 더욱 努力하여 앞으로의 發展을 圖謀할 動機가 되었다는데 큰 意義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또한 行政改革委員會에서 移牒된 이 報告書를 土臺로 文敎部가 어떻게 處理하여 나가느냐가 關心을 모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行政改革委員會報告書를 中心으로 未洽한 點과 잘된 點을 評價하고 發展的인 展開를 試圖하여 앞으로 文敎部에 政策資料로 提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今年의 大會 主題를 “圖書館行政改善을 위한 政策資料의 發展的 展開”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던 먼저 行政改革委員會에서 “圖書館 行政改善을 위한 調查報告書”가 나오기 까지의 經過를 제가 아는 範圍에서 簡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科學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科學技術情報의 流通網을 形成하라는 指示를 받고 第1 調査室 南容子理事官을 비롯한 全職員이 이에 대한 調查研究를 始作하였으며 처음에는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와 接觸을 갖고 일을 推進하다 보니 文獻情報의 流通網을 開發하고 確立하는 일은 바로 圖書館의 發展을 圖謀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韓國圖書館協會와 接觸이 始作되었던 것입

니다. 그리하여 圖書館界에서 諮問委員會를 委囑하여 그의 諮問을 받고 館種別로 여러 圖書館人들을 召集하여 意見提示를 받는 등 活潑히 進行되었으며 이 일에 관계자들이 圖書館學의 專門家가 되다싶이 많은 工夫와 研究調査를 1년에 걸쳐 實施하였던 結果 상당히 具體적이고 폭넓은 시정책이 成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結果를 行政改革委員會에 報告하는 過程에서 實現可能한 範圍로 縮小하게 되었으며 지난 5월에 總理의 決裁를 받아 文敎部에 行政資料로 移牒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 報告書는 小主題로 나누어 發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個人的으로 느낀 點을 큰 項目으로 몇가지만 披瀝하여 보고자 합니다.

1) 圖書館開發을 구준히 이끌어 나갈 常設機構에 대한 言及이 없습니다. 美國의 경우 1966年 大統領 直屬으로 圖書館諮問委員會가 設置되었고 이 諮問委員會의 建議에 따라 圖書館 및 情報科學委員會라는 獨立된 行政部署가 1970년에 設置되었습니다. 우리가 大統領 直屬의 諮問委員會나 獨立된 圖書館專擔 行政部署를 바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國務總理 直屬으로 圖書館開發委員會를 設置하고 文敎部內에 最小한 課單位의 專擔部署가 設置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行政改革委員會의 이 資料는 文敎部에서 圖書館 發展策을 樹立한다는 하나의 指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豫算과 職員人事問題 등 確固한 對策이 없습니다. 文敎部에서 이를 實施하기 위하여서는 總務處, 內務部, 經濟企劃院 등 여러 部處間에 理解가 成立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 計劃 自體가 霧散되고 말 可能性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部處間의 調整 등 根本的인 圖書館政策機構로서 國務總理 산하에 圖書館開發委員會의 設置가 가장 重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例를 들어 文敎部에 圖書館課를 設置하려고

하여도 總務處에서 書記官 T/O 配定을 追加하여 주지 못하는 限 그 實現이 不可能한 것이며 公共圖書館을 아무리 郡單位까지 設立하려고 計劃을 세웠어도 經濟企劃院에서 豫算配定이 안되면 虛事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各 該當 部處間의 異見을 調整할 수 있는 政府 上位機構에 圖書館政策을 위한 常設機構가 必要한 것입니다.

2) 學校圖書館에 관한 事項이 全然 없습니다. 平生教育을 實施할 수 있는 圖書館利用이 生活化될 수 있도록 初等教育부터 圖書館을 中心으로 한 教育을 實施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等閑히 한 것은 理解가 가지 않습니다. 國民의 知的水準을 높이기 위한 義務教育의 延長만이 時急한 것이 아니고 平生教育을 통하여 스스로 知的水準을 開發하여 나갈 수 있는 圖書館利用을 生活化하고 習慣化할 수 있도록 初等教育에서 부터 圖書館利用을 積極 誘導하기 위하여 學校圖書館의 育成策이 提示되어야 할 것입니다.

3) 特殊圖書館에 관한 事項이 또한 言及되지 않았읍니다. 이것을 法制化하여 強制規定을 設定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生産技術을 研磨하고 獨創的 技術開發을 誘導하기 위하여서도 生産業體 등에 圖書館을 設置하도록 啓蒙 誘導하는 方案을 講究하도록 어떠한 言及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4) 大學圖書館에 대해서는 서울大學校圖書館에 관한 것 뿐으로 全國大學과의 相互貸借 등 相互協力할 수 있는 機能을 賦與한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른 大學圖書館은 落後되어 있어도 서울大學校의 資料만 利用시킬 수 있으면 大學의 目的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5) 國立主題專門圖書館의 新設에 대한 言及이 없습니다. 公共圖書館을 中心으로 全國的인 Network을 形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科學技術情報까지도 公共圖書館에서 그 Network을 主導하여 나가는 것이 現實적으로 可能할 것인지 疑問입니다. 公共圖書館은 國民의 教養을 涵養시키고 日常生活情報를 提供하는 것이 主機能이며 科學技術情報는 主題專門圖書館의 機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當初의 意圖였던 科學技術情報 流通網의 確立이라는 目的을 생각할 때에 國立科學, 醫學, 農學, 工學 등의 專門圖書館을 設立하여 그 主題에 관한 大學 및 專門圖書館 등을 包含한 全國的인 Network을 形成하여 書誌管理, 相互協力 등을 主導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 司書養成을 위한 教育制度에 관한 事項이 未洽합니다. 高度의 專門의 情報奉仕를 할 수 있는 主題專門 司書의 養成도 時急한 問題이며 1980年度부터 新設된 圖書館學科의 境遇를 보더라도 서울市內 4個大學의 新

設은 모두 單科大學에, 그나마 夜間에 認可가 되었읍니다. 果然 專門性을 要求하는 司書의 養成을 넓은 分野의 資料와 實際 모든 分野의 參考奉仕를 實施하고 있는 圖書館이 없이 資質있는 司書의 養成이 可能할 것인가 근심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處事は 司書의 專門性和 重要性은 조금도 認定하지 않는 實情이라고 볼 때에 司書의 社會的 認定은 遼遠한 것이며 따라서 훌륭한 人材의 確保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以上에 列學한 條項들은 行政改革委員會의 調查報告書를 單純히 批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文敎部에서 圖書館開發 計劃을 樹立하고 實踐하여 나가는데 補充되었으면 하는 希望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美國과 같이 關拓當時부터 모든 國民이 圖書館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發展시켜 온 나라에서도 圖書館 奉仕法이 1946년에 國會에 上程되어 1956년에 通過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事實을 볼 때에 우리도 너무 性急하게 期待하고 行動할 것이 아니고 우리 圖書館人들이 꾸준히 努力하여 發展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美國에서의 10년이 걸린 圖書館奉仕法 通過도 政府에서 主導한 것이 아니고 圖書館人들이 꾸준히 努力하여 結實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Washington에 圖書館協會 連絡事務所를 設置하여 꾸준히 政府와 國會에 交涉을 벌려 왔으며 오히려 保健教育厚生省에서는 圖書館開發이 必要하기는 하나 豫算에 限度가 있어 教育, 保健, 厚生分野에 보다 緊急한 일이 많아 반드시 이 法案이 優先하여야 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圖書館人들은 國家에게 期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努力하여 우리의 所望이 이루어지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읍니다. 協會에서는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自體에서 바람직한 圖書館法으로 改定하기 위하여 그 案을 作成하여 關係當局과 接觸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行政改革委員會에서 調查를 始作하기 몇年前부터 圖書館協會에서는 圖書館法을 改定하기 위하여 꾸준히 일을하여 왔으며 本人도 수차례 걸친 改定案作成 作業에 直接 參與한 경험으로 보아 紙上으로 公聽會도 實施하였으나 會員中에 意見을 積極的으로 提示하여 주는 境遇가 거의 없었습니다. 좀더 多같이 關心을 가지고 積極 參與하여 좀더 發展된 圖書館界를 이룩하여 우리 後世에 물려 주어야 할 重大한 使命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大會를 통하여 發表者와 더불어 活潑히 討議하고 훌륭한 意見을 提示하여 앞으로 圖書館開發計劃의 指針이 될 수 있는 成果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